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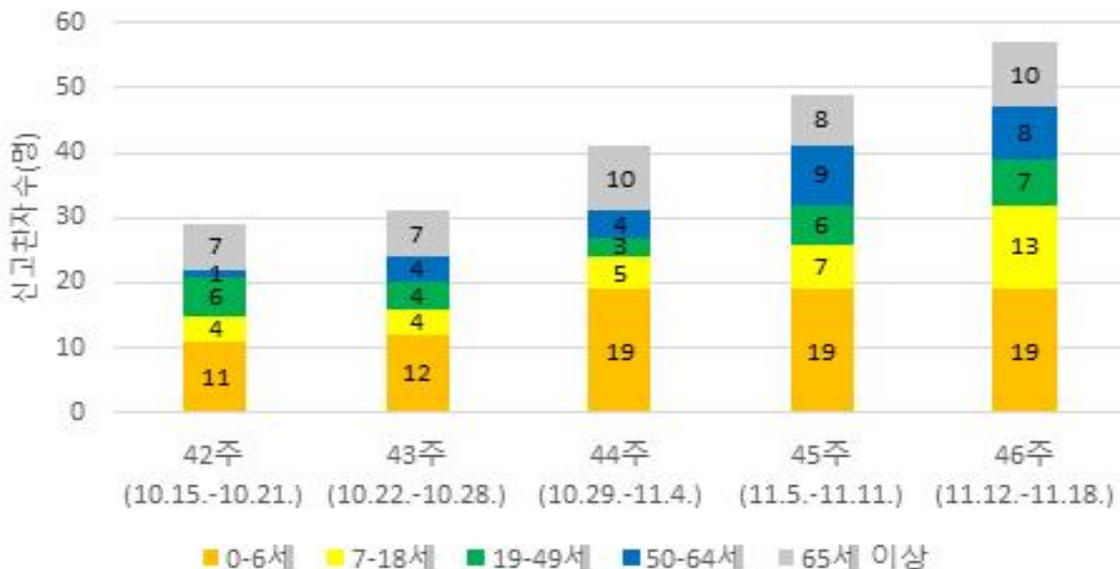
최근 5주간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2배 증가 올바른 손씻기로 예방하세요

-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 5주간 2배 증가, 영유아(0~6세)가 38.6% 차지
 - * (42주) 29명 → (43주) 31명 → (44주) 41명 → (45주) 49명 → (46주) 57명
 - * 최근 5주간 연령별 발생 비율: (0~6세) 38.6%, (65세 이상) 20.3%, (7~18세) 15.9%, (19~49세) 및 (50~64세) 12.6%
- 예방백신이 없어 비누로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, 환자 발생 시 환경소독, 환자의 등원(교) 자제 요청

질병관리청(청장 지영미)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간 증가 중이고, 특히 영유아(0~6세) 환자가 전체의 38.6%를 차지하고 있어, 영유아 및 관련시설(어린이집, 키즈카페 등)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.

- * 42주(10.15.-10.21.) 29명 → 43주(10.22.-10.28.) 31명 → 44주(10.29.-11.4.) 41명 → 45주(11.5.-11.11.) 49명 → **46주(11.12.-11.18.) 57명**
- * 최근 5주간 연령별 발생 비율: (0~6세) 38.6%, (65세 이상) 20.3%, (7~18세) 15.9%, (19~49세) 및 (50~64세) 12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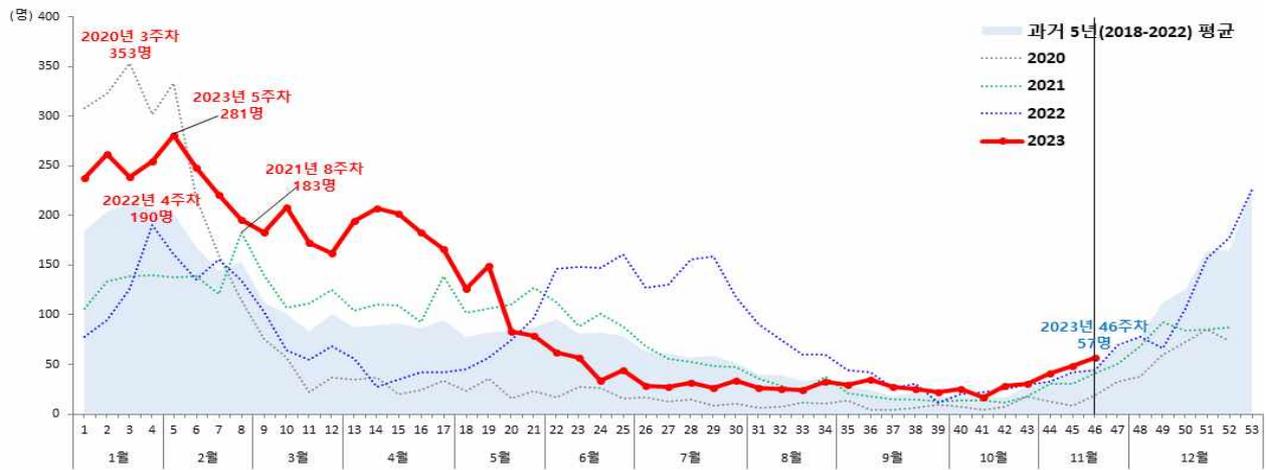
<그림 1. 최근 5주간 연령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추이>



노로바이러스(Norovirus)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,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며,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 될 수 있다.

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(11월~4월)에 주로 발생하며,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(0~6세)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.

<그림 2. 과거 5년('18~'22년) 대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추이>



* (과거 5년간 발생현황) '18년 4,725명→'19년 5,782명→'20년 3,219명→'21년 4,082명→'22년 4,672명

주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(지하수) 혹은 음식물(어패류 등)을 섭취한 경우이나,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.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~48시간 안에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, 사람에 따라 복통, 오한,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.

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,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℃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.

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,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,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여 생활해야 한다. 또한,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.

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, 환자 분비물(분변 또는 구토물)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(락스 1: 물 50)하여 문힌 천으로 닦아내어 소독하고,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에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 (KF94)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.

※ 소독은 손이 닿는 물체(문 손잡이, 수도꼭지 등)를 중심으로 닦아내고, 세탁물은 70℃ 이상에서 세탁하거나, 락스 희석액(락스1: 물 330)으로 5분 이상 헹굼

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“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를 당부하고,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을 강조하며, 집단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요청하였다.

<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행동수칙>

일상생활 시	환자 발생 시
① 올바른 손씻기(외출 후, 식사 전, 배변 후,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) ② 채소·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고, 껍질은 벗겨 먹기 ③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기(85℃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) ④ 끓인 물 마시기 ⑤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- 칼·도마는 소독하여 사용 - 조리도구는 구분(채소용, 고기용, 생선용)하여 사용	① 환자는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등원, 등교 및 출근 제한 권고 ②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하도록 권고 ③ 배변 후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기 ④ 환자가 발생한 경우 구토물, 접촉환경,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염소 소독 - 가정용 락스 희석액(락스1: 물 50)으로 염소 소독 - 세탁물은 70℃ 이상에서 세탁하거나, 락스 희석액 (락스1: 물 330)으로 5분 이상 헹굼 ⑤ 올바른 손씻기로 개인위생 준수

- <붙임> 1. 「노로바이러스 감염증」 개요
 2. 「노로바이러스 감염증」 발생 현황
 3. 「노로바이러스 감염증」 질의 응답
 4. 「노로바이러스 감염증」 환자 발생 시 소독 방법
 5. 「노로바이러스 감염증」 예방수칙 홍보자료(포스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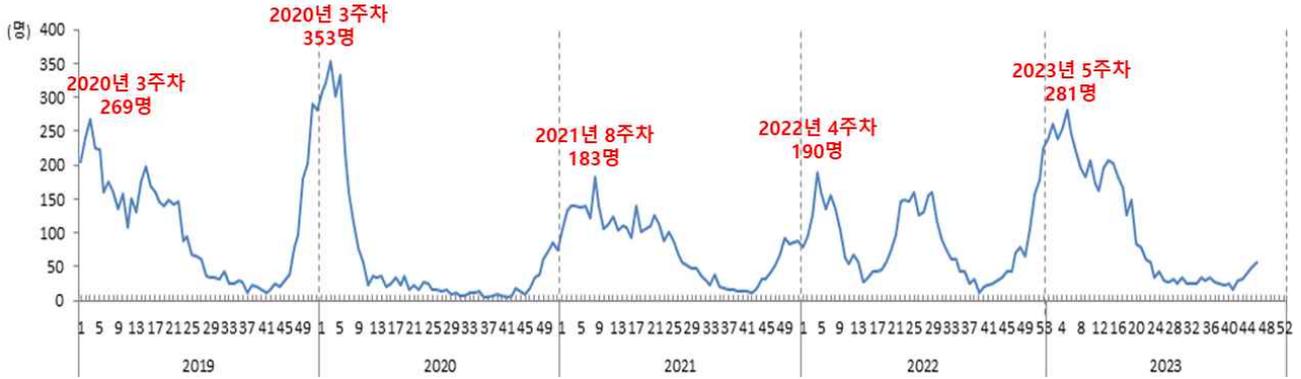
담당 부서	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	책임자	과 장	양진선 (043-719-7140)
		담당자	연구관	박소연 (043-719-7157)
			연구사	김형준 (043-719-7152)

붙임 1 「노로바이러스 감염증」 개요

정의	□ 노로바이러스(<i>Norovirus</i>)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
질병분류	□ 법정감염병 : 제4급 감염병 □ 질병코드 : ICD-10 A08.5
병원체	□ <i>Norovirus</i> - <i>Caliciviridae</i> 속에 속하는 리본형의 RNA바이러스로 27-32nm의 크기, 소장 미세융모 손상으로 인한 흡수장애로 증상 발현
병원소	□ 사람
전파경로	□ 분변-구강 경로 감염
잠복기	□ 10~50시간(12~48시간)
진단	□ 검체(대변, 직장도말물, 구토물)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
증상	□ 주요 임상적 증상은 설사, 구토, 복통 등 □ 1~3일간 지속되는 낮은 발열,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
치료	□ 대증 치료 :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, 전해질 보충
치사율	□ 대부분 회복하고, 사망은 드물
관리	□ 환자관리 : 증상이 있는 환자는 조리종사자, 보육시설·요양시설 종사자, 간호, 간병, 의료 종사자에서 업무 제한, 장내배설물에 오염된 물품 소독 □ 접촉자관리 : 발병여부 관찰 □ 환경 관리 - 구토물, 접촉환경,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소독(시판용 락스희석액 (락스 1: 물 50) 활용)
예방	□ 일반적 예방 -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* 음식조리 전, 수유하기 전, 배변 후, 설사 증상 있는 사람 간호한 경우, 외출 후 - 안전한 음식 섭취 : 음식 익혀 먹기, 물 끓여 마시기

붙임 2 「노로바이러스 감염증」 발생 현황

○ 최근 5년간 환자 발생 추이(2019-2023)



* 2023년 자료는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

** 수행기관 : 질병관리청 / 전국 206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(병원급 이상)

*** 2023년 기준 표본감시기관 206개(상급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공공병원)

○ 최근 5주간(10.15.-11.18.) 연령별 환자 발생현황(잠정통계)

	42주 (10.15.-10.21.)	43주 (10.22.-10.28.)	44주 (10.29.-11.4.)	45주 (11.5.-11.11.)	46주 (11.12.-11.18.)
전 체	29	31	41	49	57
0-6세	11 (37.9%)	12 (38.7%)	19 (46.3%)	19 (38.8%)	19 (33.3%)
7-18세	4 (13.8%)	4 (12.9%)	5 (12.2%)	7 (14.3%)	13 (22.8%)
19-49세	6 (20.7%)	4 (12.9%)	3 (7.3%)	6 (12.2%)	7 (12.3%)
50-64세	1 (3.4%)	4 (12.9%)	4 (9.8%)	9 (18.4%)	8 (14.0%)
65세 이상	7 (24.1%)	7 (22.6%)	10 (24.4%)	8 (16.3%)	10 (17.5%)

붙임 3 「노로바이러스 감염증」 질의 응답

Q1 「노로바이러스 감염증」이란 무엇인가요?

해답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입니다.
우리나라에는 연중 내내 발생하지만 겨울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.
노로바이러스는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집단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병원체 중 하나입니다.

Q2 「노로바이러스 감염증」에는 어떤 증상이 있나요?

해답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~2일 안에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주로 그 외 복통, 오한,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증상은 2~3일간 지속된 후 저절로 호전됩니다. 영아, 노인,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탈수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
Q3 「노로바이러스 감염증」은 어떻게 감염되나요?

해답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,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합니다.
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,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.

Q4 「노로바이러스 감염증」의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?

해답 특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2~3일 후에 회복합니다.
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 섭취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붙임 4 「노로바이러스 감염증」 환자 발생 시 소독 방법

○ 환자 분비물의 제거 및 소독

환자구토물이나 분변에는 바이러스가 가득합니다. 깔끔하게 치우고 소독합니다!

1) 페트병을 이용하여 간단한 소독액을 만듭니다.

준비물

- 염소계 표백제
- 500ml 페트병(잘 씻고 건조한 병), 종이컵(180ml)
- 종이타월
- 쓰레기봉투(버리기 쉽도록 쓰레기통에 씌워놓기)
- 일회용 고무장갑
- 마스크 및 앞치마 등(감염방지용)



2) 구토물 또는 분변을 처리합니다(염소농도 4%표백제를 사용하는 경우).

① 0.1%(1000ppm)~0.5%(5000ppm)농도의 소독액을 만듭니다.

0.1%(종이컵 1/5컵분량) 또는 0.5%(종이컵 1/3컵분량)으로 염소계 표백제를 페트병에 붓습니다.	물을 더해 500ml로 채운 후 뚜껑을 닫아 잘 흔들어 섞습니다.
	
	

② 구토물이나 분변을 치워 비닐봉지에 담습니다.

소독액을 적신 종이타월로 구토물 등을 닦습니다.	닦아낸 면을 덮어가면서 담아 제거한 후 쓰레기봉투에 담습니다.
	
	

③ 구토물 등이 있던 곳과 주변을 소독합니다.

소독약을 적신 종이타월로 수 차례 닦은 후 물로도 수 차례 닦는다.	사용한 종이타월과 장갑도 쓰레기봉투에 담아 소독액을 뿌린 후 밀폐시켜 버린다.
	
	

3) 처리 후에는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를 합니다.

○ 가정(환경) 내 소독

가정 내 소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?

❖ 0.1%(1,000ppm) 소독약을 만듭니다(염소농도 4%표백제를 사용하는 경우).
- 2ℓ (또는 2.5ℓ) 페트병+염소계 표백제 종이컵 1/3컵

소독할 장소 또는 물건	부위·종류 등	소독방법
화장실, 세면대, 욕실	대소변기, 배수용 레버, 손잡이, 수도꼭지, 욕조	세제 등으로 더러워진 곳을 닦은 후 묽은 소독액을 뿌린 후 10분 후에 물로 씻어낸다.
구토물 또는 분변이 튀 장소, 더러워진 손으로 만든 장소 등	마루, 벽, 문손잡이, 전화기 등	묽은 소독액을 종이타월 등으로 문혀 닦고 10분 후에 물(깨끗한 물걸레)로 닦아낸다.
구토물 또는 분변으로 더러워진 곳(잠옷, 속옷, 시트 등)	잠옷, 속옷, 시트, 천 기저귀 등	더러워진 곳을 닦아 묽은 소독액에 30분 정도 담근 후 세탁한다. 젖은 수건을 대고 스팀 다리미로 85도, 1분 이상 가열하는 것도 효과 있음.
구토물 또는 분변과 접촉한 물건	마스크, 앞치마, 종이타월	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다.

❖ 완료 후에는 비누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를 합니다.



2023.11.29. 질병관리청

— 추운 겨울 날씨에도 유행하는 —

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

노로바이러스는 외부 환경에서도 3일간 생존이 가능하고
감염력이 높아 예방과 대응이 중요합니다.

개인위생 지키기



비누로 30초 이상
손 자주 씻기



변기 뚜껑 닫고
물 내리기

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먹기



음식은 충분히
익혀먹기



유증상자는
식사 준비하지 않기

증상이 나타나거나, 환자가 발생했다면?
* 주요 증상: 오심, 메스꺼움, 구토, 설사, 복통, 오한, 발열, 근육통

공간 구분하기



증상이 있다면
집에서 쉬기



환자와
생활공간 분리하기

환경 소독하기



마스크 및
장갑을 착용하고,



환경 및
접촉 물건 소독하기



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기